

서울정책포커스

2007. 3. 12 제16호

청계천 지역의 문화적 이용과 발전방안

백선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1. 들어가는 말
2. 도시수변공간과 시민문화
3. 도시수변공간으로서 청계천의 특징
4. 청계천복원의 문화적 가능성과 기대
5. 청계천 이용행태 분석
6. 청계천의 문화적 의의와 정책제언

요 약

2005년 10월 1일에 개장한 청계천 지역은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방문해야 할 서울의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장된 지 58일 만에 대한민국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천만 명이 청계천을 방문하는 기록을 세웠고, 2006년 9월 3일 현재 방문객 3천만 명을 돌파했다. 청계천은 데이트와 가족나들이, 산책의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 '루미나리에 행사', '연등놀이', '하이서울페스티벌' 등 서울시 주최의 문화행사들이 연중 개최되는 한편, 도심 소재 기업들은 청계천을 이용한 문화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복원 후 1년 반 가량의 시간이 흐른 지금, 구체적인 청계천 이용실태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청계천 지역이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어떠한 공간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청계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지는 행태는 산책과 휴식, 관광이었다. 특히 시민들이 청계천을 시민휴식장소, 나들이장소, 자연생태장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민휴식공간과 생태환경 회복, 관광상품화 등 청계천 복원당시의 구상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계천 지역의 문화적 의의를 요약하면, 도심 속의 자연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 도심부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문화적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지 못하며, 청계천의 장소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도 있다.

청계천이 역사적 장소 또는 문화적 장소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청계천 지역은 서울 도심부 문화벨트의 중심축이자 역사성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공간이다. 청계천이 도심부의 문화성과 역사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계천의 장소적 의의와 가치를 되짚고 미래가치에 기반한 청계천의 미래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1. 들어가는 말

- 2004년 청계천 복원 이후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청계천 지역은 서울 도심부의 명실상부한 도시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도시의 수변공간은 도시 문화의 활성화, 생태공간의 회복, 상업의 활성화, 근린생활권의 삶의 질 향상 등과 같은 순기능이 있음. 그 중 청계천 복원 담론에서 가장 크게 강조되었던 것은 문화의 시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청계천 지역을 시민들의 일상과 문화를 수용하는 도시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음
- 복원 후 1년 반 가량의 시간이 흐른 지금 청계천 이용실태와 문화적 기능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고, 서울시민과 방문객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좀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청계천 복원은 주변지역에 대한 미래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계천 문화의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제안에 있어 청계천 자체만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의 공간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청계천에서의 시민들의 일상과 생활, 문화적 행태는 어떠한지를 관찰하고, 향후 청계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하였음. 청계천 이용행태의 전반적 패턴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미시적 이용행태의 관찰과 더불어 시민·상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관찰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2. 도시수변공간과 시민문화

○ 도시수변공간의 공간적 특징과 수변문화행태의 유형

- 도시수변공간의 공간적 특징은 개방성, 연속성, 친수성(쾌적성), 생태성, 역사 문화성, 조형성(랜드마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그에 따른 수변 문화행태는 자연감상, 산책 및 데이트, 물놀이, 레포츠, 취미 활동, 이벤트, 문화공연 등이 있음.

○ 해외의 수변공간 개발사례

- 해외의 대표적인 수변공간 이용사례로는 미국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 리버 워크,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리버플레이스, 로드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 워터플레이스파크, 일본 오사카시의 도톤보리천, 프랑스 파리의 비에브르강 등을 들 수 있음.
-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들 수변공간 개발사례를 살펴보면, 수변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즉, 이들 사례들은 친수성과 접근성을 살리기 위한 보행중심의 공간설계, 도시편의시설과의 연계, 주변부 역사문화자원과의 네트워크 형성, 장소성에 기반한 행사 및 이벤트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변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러한 해외사례는 청계천 지역 역시 주변부 자원과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함을 시사함.

3. 도시수변공간으로서 청계천의 특징

- 수변공간으로서의 청계천은 일반적인 수변공간의 특징과 더불어 청계천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청계천만의 차별적 특징은 도심부 하천이라는 점, 깊은 단면으로 인한 단절성, 상류의 인공성과 하류의 생태성이 공존하는 이중성이라 할 수 있음.
- 청계천의 공간적 특징은 구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관, 공간성, 접근성, 기본 구상 및 인프라 측면에서 각 구간별 특징을 구분할 수 있음(<표 1> 참조).
 - 1구간의 경우는 금융서비스와 언론기관으로 대표되는 업무시설과 고층빌딩군이 둘러싸고 있어 전형적인 대도시 경관을 연출함. 또한 접근성이 가장 높은 이 구간은 본래 청계천 복원구상 당시 지정된 역사존과 거의 일치하여, 광통교 복원이라든지 정조반차도 등과 같이 역사성을 강조하는 요소들이 배치되어 있음. 문화인프라가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어 이벤트와 행사들이 끊임없이 열리며, 인근 지역에서는 서비스업 증가 경향이 발견됨.
 - 삼일교 이후의 2구간은 고층빌딩의 스카이라인이 갑자기 사라지는 지역으로 인근에 도소매 판매시설과 재래시장이 집중되어 있음. 접근성 자체는 불량하지 않으나 문화인프라가 풍부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지역임.
 - 3구간은 소규모 지역산업과 주거지 경관으로 대표되는 지역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며, 청계천문화관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프로그램이 공급되고 있음.
 - 4구간은 거의 교외주거지의 경관을 보여주는 곳으로 전 구간 중에서 가장 자연경관이 탁월한 정비구역임. 접근성이 매우 불량하여 지역주민 외에는 접근하기가 어려움. 버들습지와 생태학습장을 통해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표 1> 청계천 구간별 공간적 특징

	경관 및 공간성	접근성 및 기본구상	문화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1구간	대규모 업무시설 고층 빌딩군 금융서비스, 언론기관 업태전환: 서비스업의 증가	매우 높음 (사대문안) 역사존	문화시설, 인프라 집중 (스프링, 청계광장, 청계 미니어처, 광장분수, 팔석담) 역사성강조(광통교, 정조반차도) 청계천홍보관	하이서울페스티벌 청계천미술제 다동음식축제 기업문화마케팅 청계아티스트(대부분) 종로8경8품8미
2구간	도소매 판매시설 수하동재개발계획 재래시장 저층 빌딩군	양호(동대문, 사대문안) 문화존	문화의 벽, 색동벽, 패션광장, 수변무대, 수표교터, 옥류천, 동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 청계아티스트(일부)
3구간	소규모 지역산업 주거지 주상복합건물 재개발	양호(동대문, 사대문밖) 자연존	소망의 벽, 리듬벽천, 청계천 빨래터, 터널분수, 존치교각, 청계천문화관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 청계아티스트(일부)
4구간	(교외)주거지 자연경관	불량(사대문 밖) 자연존	버들습지 생태학습장	축산물축제(마장동)

4. 청계천 복원의 문화적 가능성과 기대

○ 청계천의 역할에 대한 기대

- 청계천 복원을 전후하여 나온 보고서와 세미나, 각종 계획 등을 종합하여 복원계획과정에서 구상되었던 청계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면, 서울의 역사성 회복, 도심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거점, 문화관광의 중심축, 자연성 회복 등과 같은 네 측면이 특히 강조되고 있음.

○ 청계천과 관련하여 실시되었던 여론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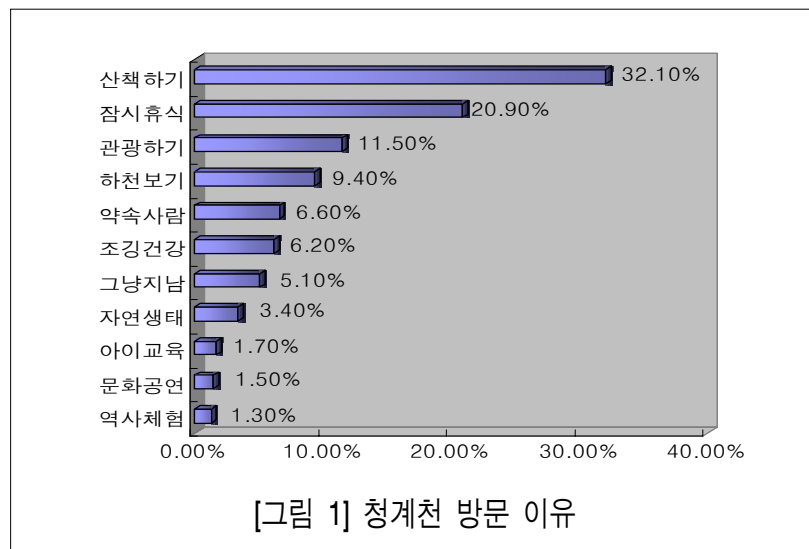
- 이들 여론조사는 크게 청계천 복원의 성과와 앞으로의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음.

- 시민들은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생태환경이 회복되었으며 시민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청계천에 대한 앞으로의 요구사항으로는 좀더 도심문화공간으로 정비할 것과,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 도심부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청계천 주변부 지역의 재개발 및 정비 등을 주로 언급하고 있음.
 - 여론조사 결과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복원계획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된 사항 중 하나인 역사성 회복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이 낮다는 점임. 이는 역사성 회복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청계천의 복원과 관련된 언론자료 분석
- 언론에서는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 도심문화공간, 휴식공간, 생태환경, 새로운 개발과 재생공간, 역사공간 등의 측면에서 청계천을 파악하고 있음.
 - 청계천 복원을 전후한 시기에는 청계천의 반생태적 복원 및 개발논리, 물리적 안전성 등과 관련된 논란 등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청계천 복원 1주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러한 비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시민의식 고양 등을 통해 더 나은 청계천을 만들자는 담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 청계천이 이제 시민문화의 한 장으로 자리하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음.

5. 청계천 이용행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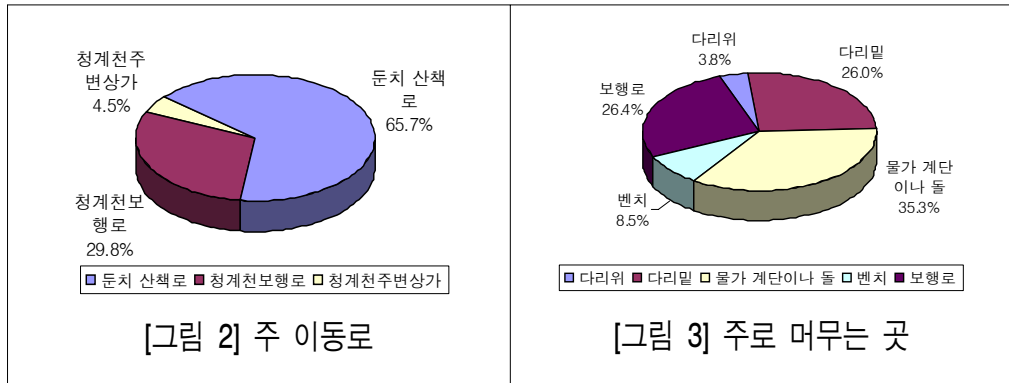
- 청계천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참여관찰조사를 하였음. 우선 설문조사는 2006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70명의 청계천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방문횟수는 청계천에 '처음 오거나 어쩌다 온다'가 55.1%로 나타났으며, 청계천에 방문해 머무는 시간의 경우 '1~2시간'(44.5%)이 가장 많았음. 또한 청계천을 주로 방문하는 시간대는 주로 '오후시간'(39.8%)이었음.
- 청계천을 방문하는 날은 '주말이나 공휴일'이 56.4%로 가장 높았으며, 청계천에 대해서 주로 정보를 얻는 곳은 'TV나 라디오'(27.4%)가 가장 많았음.
- 청계천을 방문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이 52.1%로 가장 많았으며, 청계천을 방문해 주로 이동하는 수단은 '도보'가 96.4%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계천을 방문하는 목적은 '산책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가 20.9%로 두 번째로 많았음(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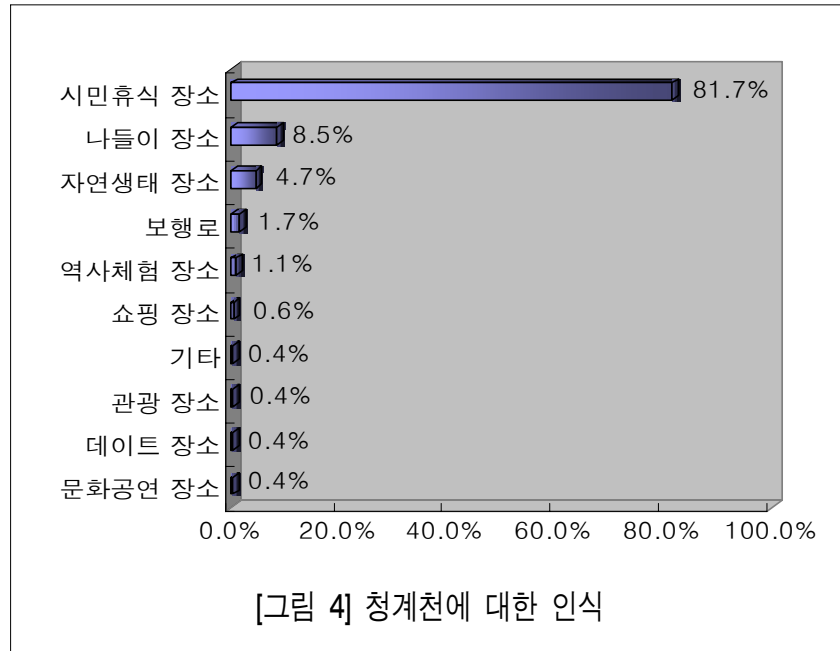


- 주로 동행하는 사람은 '친구나 애인'(59.6%)이 가장 많았으며, 청계천 주변 지역 중 가본 곳으로 '종로'라고 응답한 사람이 27.2%로 나타나 청계천을 방문한 사람은 종로를 가보는 경향이 높았음.

- 청계천을 방문했을 때 주로 머무는 곳은 '물가계단이나 돌'(35.3%)위가 가장 많았음(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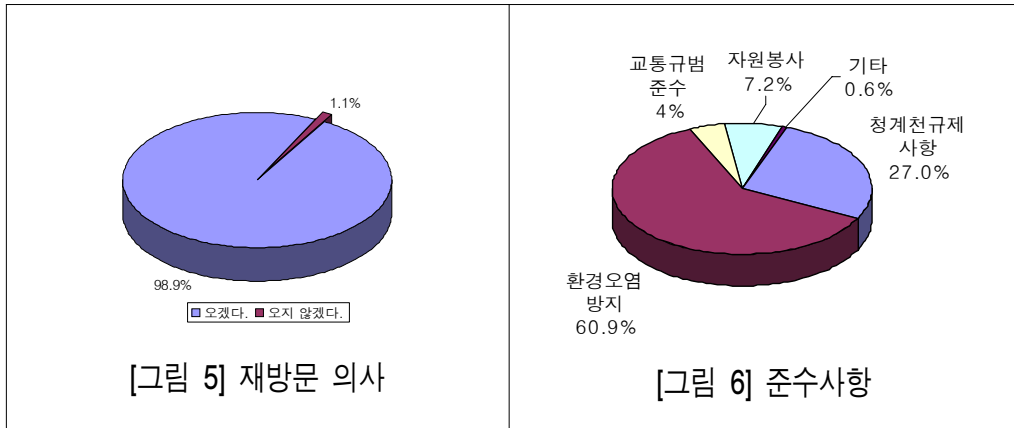
- 청계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1.7%가 '휴식장소'라고 응답하였음(그림 4) 참조).



- 청계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역사문화를 잘 복원했다'와 '문화행사가 많아서 좋다'는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3.02)를 보였음. 아울러 '체험편의성'

과 '정비효과성'은 여성응답자의 점수가 높았으며, 나머지 '휴식편의성', '문화편의성', '자연친화성', '관광편의성'은 남성응답자의 점수가 높았음. 구간별로는 '문화편의성'과 '관광편의성'을 제외하면 4구간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1구간은 4구간과 반대로 '문화편의성'과 '관광편의성'이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음.

-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현 거주지별로는 청계천 인근지역'보다 기타 지역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음. 근무지별로는 기타지역이 인근지역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음.
- 청계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는 다리를 건너보거나 상가지역을 걸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일이었음.
- 청계천을 이용하면서 시작하는 지점은 '청계광장'이 2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고산자교'로 6%이었음. 또한 청계천 방문을 끝내는 지점으로는 역시 '청계광장'이 18.3%로 가장 많았으며, 주 이용지점 역시 '청계광장'으로 나타났다음.
- 청계천을 방문하여 이동하는 거리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이동하며, 봄보다는 가을에 더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음. 아울러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청계천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음. 구간별로는 역시 1구간이 가장 적은 이동거리를 보였고, 4구간이 가장 긴 이동거리를 보였음.
- '청계천을 다시 방문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8.7%로 나타났으며, 좀더 나은 청계천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60.9%가 '환경오염방지'라고 응답했음((그림 5), (그림 6) 참조).



○ 설문조사 결과 청계천 내에서의 시민문화행태는 전 구간 공통적인 특징과 구간별 차별적 특징으로 구분되었음. 우선 전 구간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체재시간이 2시간 이내로 비교적 짧고, 청계천 출입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은 청계광장임.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청계천을 재방문하겠다고 응답하여, 이용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청계천을 시민휴식장소로 인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나들이장소와 자연생태장소로 인식하고 있었음. 그러나 청계천의 복원의도와는 달리, 이 지역을 역사체험의 장이나 문화공연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낮았음. 반면, 청계천 복원으로 역사문화가 복원되고 문화행사가 많아져서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보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구간별로 차별적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함.

- 1구간의 경우 전체 구간 중에서 친구·애인을 동반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당연히 데이트 경험 비중도 가장 높았음. 대중교통을 이용해 청계천을 방문했다는 응답도 가장 많은 반면, 전 구간 중에서 가장 이동거리가

짧았음. 문화인프라가 가장 많이 갖춰져 있는 구간인 만큼 역사문화복원 만족도와 문화편의성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구간은 처음 또는 어쩌다 한번 방문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아서, 전 구간 중 일회적 방문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또한 다른 구간들에 비해 자가용을 이용해 방문한 빈도도 높게 나타남.
 - 3구간은 주말이나 휴일의 방문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구간으로, 동대문시장의 쇼핑과 연계하여 이해가 가능함. 친구나 애인을 동반한 비중이 높으며, 문화편의성, 정비효과성, 자연친화성 등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청계천 정비 및 안내·의료시설 확충 요구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4구간은 한 달에 1회 이상 방문하는 정기적 방문객이 가장 많고, 방문하는 요일도 주말보다 평일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구간에서 운동 및 가족나들이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보를 이용해 접근했다는 응답도 가장 높았음. 이동거리가 전 구간 중에서 가장 길다는 점에서도 근린지역 주민들의 운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휴식편의성과 자연친화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참여관찰을 통해 청계천 방문객의 이용행태를 분석해 보면, '개별적 이용형'과 '행사 참가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개별적 이용형의 경우는 '산책 및 휴식형', '운동형', '천변 구경꾼형'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행사 참가형의 경우는 '일회성 이벤트 참가'와 '반복적 이벤트 참가'로 구분되었음.
 - 주중에는 직장인의 문화체험과 휴식·운동의 공간으로, 주말에는 가족나들이

의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저녁시간대는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음.

- 광화문 및 종로와 인접한 청계천 상류부 이용객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제공되는 문화콘텐츠도 풍부하였음. 이용객은 주로 주변 직장인과 나들이객 및 관광객들임. 하류부로 갈수록 이용빈도 자체가 낮아지며, 지역주민의 근린생활공간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크고, 생태환경이 매우 풍부함.
 - 청계천에서 열린 각종 행사의 경우, 걷기대회나 청계천문화관 행사와 같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에는 반복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한 시민들이 많음. 이들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충실하게 참가함. 반면 청계아트스트의 공연이나 하이서울페스티벌 등 일회적이고 비정기적이며 다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정보도 없이 그냥 왔다가 우연히 관람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대개 잠시 보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행태를 보임.
- 참여관찰을 통해 분석된 개별적 이용형과 행사 참가형, 구간별 특징을 요약하면 (그림 7)과 같음.

개별적 이용형	행사 참가형	구간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책 및 휴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연인, 친구단위 - 심리적 안정감 - 도심 속 자연공간 - 연결성 (신호등없음) •운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직장인 - 주거지 인접 •천변구경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단절감 - 관조적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회성 이벤트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연히 참가 - 문화향수 기회 증가 •반복적 이벤트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걷기대회 - 청계천문화관 행사 - 주민, 가족단위 •프로그램 만족도 높음 •청계천에서 문화이벤트 경험률이 낮음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구간 산책및휴식형 천변구경관형 운동형(주중, 직장인) 2구간 산책및휴식형 운동형(주중, 직장인) 3구간 운동형(주민, 상인) 산책및휴식형 4구간 운동형(주민)

[그림 7] 참여관찰 분석결과 요약

- 구간별로 청계천 지역의 장소적 특징과 설문조사 및 참여관찰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표 2>와 같음.

<표 2> 청계천 구간별 조사결과 종합

	장소적 특성	설문조사	참여관찰	종합
1구간	도심 고층빌딩군 문화 인프라 풍부 이벤트, 청계아티스트 역사존으로 구상됨	친구, 애인동반 높음 문화편의성 만족 역사문화복원 만족	휴식 및 산책형 천변구경균형 운동형(직장인) 행사참여형(이벤트)	도심문화 향수지역
2구간	도심 저층빌딩군 동대문시장, 재래시장 문화 인프라 보통 문화존으로 구상됨	처음방문을 높음	이용인원 급감 ※ 동대문시장주변; 휴식 및 산책형	문화음영지역
3구간	도심 저층빌딩군 중소지역산업+주거지 동대문시장, 청계천문화관 문화 인프라 보통 자연존으로 구상됨	친구애인동반 높음 문화편의성 만족 정비효과성 만족 자연친화성 만족	운동형(주민, 상인) 행사참여형(주민, 청계천문화관) ※ 동대문시장주변; 휴식 및 산책형	지역사회 문화공간
4구간	(교외)주거지 문화인프라 열악 생태환경 풍부 자연존으로 구상됨	가족동반 높음 이동거리가 가장 김 운동, 가족나들이 경험 평일, 정기적 이용 높음	운동형(주민)	근린생활 체육공간

6. 청계천의 문화적 의의와 정책제언

-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청계천 지역의 시민문화행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요약되는 문화적 의의는 다음과 같음.

- 청계천 지역은 도심 속의 자연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음. 청계천 시민문화행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유형이 산책 및 휴식임. 이용객이 가장 많은 청계천 상류부를 둘러싼 경관은 고층빌딩으로 대표되는 도시적 경관이지만, 청계천의 깊은 단면은 주변 도시경관과의 단절감을 형성하면서 청계천 내부를 조

용한 자연환경으로 만들고 있음. 생태적 환경이 잘 갖추어진 하류구간이나 인공적 조경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상류구간이나에 상관없이, 이용하는 시민들은 청계천이 도심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이라는 점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음.

- 청계천 지역은 도심부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서울시는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도 문화마케팅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도심부 수변공간이라는 청계천의 장소적 특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잘 맞아떨어져, 공공적 차원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많이 기획·제공되고 있으며 각종 행사 및 이벤트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또한 사옥 근처에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청계천 이용시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가 늘고 있음은 분명함.
- 그렇지만 청계천의 공간적 단절은 문화적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청계천은 깊은 하천 단면과 높은 호안석축 때문에 하부의 천변공간과 상부의 주변지역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단절되어 있음. 물이 존재하는 수변공간의 느낌은 오직 청계천 하부에서만 느낄 수 있으며, 주변 지역에서 청계천을 내려다보지 않는 한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임. 또한 단차가 심해서 주변 상가의 저층에서는 청계천의 물이 보이지 않음. 따라서 수변공간에서 산책과 휴식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은 대개 둔치산책로를 이용하게 되며, 천변보행로는 이동의 통로로만 이용되고 있음. 이러한 단절감 때문에, 청계천의 이용객이 3천만 명을 돌파하였지만 그 효과가 주변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활성화와 직접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청계천의 장소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청계천이 흐르고 있는 서울 도심부는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수도이자 눈부

신 근대화의 기수가 되었던 산업도시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임. 그러나 청계천의 문화행태는 청계천이 입지한 도심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청계천과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문화프로그램이 거의 없기 때문임. 도심부에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자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계천이 가지고 있는 도심부 수변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을 살려야 할 것임.

-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공급을 늘려야 함. 청계천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지만, 방문객의 문화예술 경험률은 매우 낮으며, 좀더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음.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자체의 공급을 늘리고 다양화할 것이 요구됨.
- 청계천 지역의 문화적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이 도출됨.
- 천변공간의 주변지역과의 구조적 단절성 완화를 위한 연변건축물 관리 지침을 재개발 수행시 반드시 시행하도록 함.
 - 지천을 이용한 청계천 주변지역의 친수공간 확보를 유도함. 시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청계천 상류는 천변보행로로부터 하천이 시각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계천은 수변공간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운 구조를 지님. 따라서 주변지역의 삼각천 물길과 같은 잠재력이 있는 지류를 오픈스페이스와 함께 복원 조성함으로써, 하부 청계천과 상부 주변지역 지류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다양한 공간체험을 주는 수변공간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음.
 - 도시가구(Street Furniture) 및 공공예술을 통한 천변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함. 청계천 주변지역은 다수의 대규모 재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새롭게 조성되는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공간구성이 중요함. 이러한 오픈스페이스 구성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도시가구 및 공공예술을

통하여 천변가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주변지역의 문화재, 지천, 이전지, 하천시설물 등 장소적 잠재력을 발굴하여 청계천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함.
- 주변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예술촌 조성 등과 같은 지구차원의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지원과 활성화를 모색함으로써 청계천이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함.
- 청계천이 문화공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그렇지만 산책로에서 산책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변무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둔치를 활용한 문화예술공연은 지양하며, 천변보행로나 광장, 주변의 오픈스페이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백선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294
seonbaik@sdi.re.kr